

[사회]

무인정찰기로 폭력시위 잡는다

경찰, 사진 찍어 증거 채택...내달중 기종 선정 현장실험

복면시위자 얼굴 판독 시스템도 개발중

경찰이 폭력시위 사진 채증을 위해 소형 첨단 무인정찰기를 도입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원격 조종이 가능한 소형 무인정찰기와 얼굴 패턴 인식 시스템을 결합한 고성능 시위 채증 장비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서 군사용이나 도심 치안 유지용으로 쓰이는 소형 무인정찰기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조해 사용키로 하고 다음달 중 기종 선정을 위한 현장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날개 너비가 1m 가량 되는 소형 무인정찰기에는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사진 채증이 가능하도록 강한 조명을

로 피사체를 비추는 장비나 적외선 촬영 장치가 탑재된다.

경찰은 대당 가격이 각각 수천만원과 수억 원 수준인 2종류의 소형 정찰기를 놓고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지난해 6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시속 48km의 속도로 70분간 비행할 수 있는 무게 2.3kg짜리 무인정찰기 '스카이시어'(SkySeer)(대당 2만5천~3만 달러)를 도심 치안유지용으로 배치한 바 있다.

경찰은 또 고층건물이 없는 농촌 지역 불법 집회의 경우 헬리콥터를 동원해 폭력 주동자 등에 대한 증거 사진을 수집키로 했다.

경찰은 복면을 쓰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면시위자 얼굴 굴판독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폐쇄회로TV나 카메라 등에 찍힌 피의자를 관찰하는 기존의 피의자 얼굴 인식 시스템과 결합해 사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폭력시위자에 대한 영장심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고성능 채증 장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격렬한 폭력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이나 전의경이 카메라를 들고 채증 사진을 찍을 경우 시위대의 반발로 지역 불법 집회의 경우 헬리콥터를 동원해 폭력 주동자 등에 대한 증거 사진을 수집키로 했다." /연합뉴스

"내 고향, 위성영상으로 보세요"

전남도 '블로그 시스템' 800여명 가입 '인기'

인터넷으로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위성영상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한 전남도의 '국민참여형 위성영상 블로그 시스템'(http://gis-blog.jeonnam.go.kr)이 개통 한 달여 만에 83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공식 개통한 위성참여형 블로그시스템에는 이날 현재 833개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으며, 블로그마다 3~4장씩 모두 3천여 장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브 로컬과 구글사의 구글어스 등에서 활용되는 블로그 시스템 중 장점을 모아 개발한 전남도의 블로그 시스템은, 휴대폰 등으로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의 위성영상 위에 바로 등록할 수 있으며 댓글도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이다.


현재 운영되는 블로그는 부동

산 중개소는 물론 자신의 집이나 고향, 주변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형태가 대부분. 이번 설날을 맞아 부모님의 산소에서 차를 지나거나 벌초를 하는 모습을 올린 블로그도 많이 등장했다. 정 씨씨는 지난 16일 '아버님 산소'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등록하고 '자주 가 뵙지는 못하더라도 멀리 위성사진으로나마'라는 글을 통해 아쉬움을 달렸다.

전남도의 블로그 시스템은 지난해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지원사업 과제에 선정, 국비 4억 원과 도비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됐다. 전남도는 관광서와 기업, 개인 등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 조 원대의 광고효과를 비롯한 전문화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







봄 재촉하는 햇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2월 20일 (음 1월 3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0~14℃
주요도시	맑음	1~12℃
여수	맑음	4~12℃
수원	맑음	1~14℃
대전	맑음	-4~15℃
대구	맑음	-3~14℃
부산	맑음	-3~15℃
제주	맑음	-2~14℃
서울	맑음	-3~16℃
인천	맑음	0~13℃
안동	맑음	0~13℃
울릉도	맑음	-1~13℃
독도	맑음	-4~14℃
영남	맑음	-1~13℃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0.5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3:53 썰물 < 09:10
16:19 썰물 < 21:34
여수 밀물 < 11:02 썰물 < 04:39
23:20 썰물 < 17:04

▲해돋이 07:14 ▲해질 18:19 ▲달 뜨기 08:36 ▲달 지기 21:2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날씨						
최저/최고	1/15	2/10	2/7	-2/7	-2/8	1/11

1천억 전투기 '어이없는 파손'

F-15K機 옮기다 맨홀 빠져 날개 '우지끈'



공군의 실수로 대당 가격이 1천억원인 최신형 F-15K(사진) 전투기의 날개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공군이 수리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F-15K 1대가 정비장으로 이동하던 중 오른쪽바퀴가 맨홀에 빠지면서 우측 날개가 파손됐다.

소식통은 "활주로에서 정비장까지 표시된 노란색 안전선을 따라 전투기를 예진해야 하는데도 안전선을 벗어나 사고가 난 것 같다"면서 "날개가 완전히 부러졌는지 여부는 공군 측의 보안유지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민은 미국 보잉에서 조립해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태평양을 건너 온 사고기를 미국으로 운반할 묘안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공군 측은 보잉사에 기술자들을 파견해주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15K는 지난해까지 18대가 인도됐으며 올해 12대, 내년 10대를 합해 모두 40대가 도입된다. 지난해 6월7일에는 F-15K 1대가 조종사의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G-LOC)로 경북 포항 앞바다에 추락하기도 했다.

정밀 공격직격탄(JDAM)과 벵커 버스터(GBU-28), 공대공 유도탄(AIM-9), 공대함 유도탄(HARPOON II) 등 최대 10.4t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F-15K는 전투 행동반경이 1천800km로 한반도 전역에 이르며 속력은 음속의 2.5배다. /연합뉴스



사회단체 회원 합동세배

을 나누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설날 다음날인 19일 오후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민족가족 합동세배식'. 이날 세배식에는 광주 민주·사회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 덕담(德談)을 나누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다중업소 절반 소방시설 미비

전남도 내 노래방과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30일까지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비상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날 현재 설치 실적은 45%에 그쳤다. 전남도 내 소방설비

설치대상은 비상구 1천590개소, 간이 스프링클러 182개소, 방연 2천119개소 등 모두 4천637개소에 이른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이에 대해 새로운 소방법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이 낮아 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30일까지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비상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날 현재 설치 실적은 45%에 그쳤다. 전남도 내 소방설비

소방시설 완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1단계로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확인지도를 편성·운영하고, 2단계로는 업소별 맞춤형 표준설계·시공방범 지도 그리고 3단계로는 지역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업주들의 소방법 인식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기간 내에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올 광주·전남 40개교 교원평가

올해 광주 8개교, 전남 32개교 등 전국적으로 506개교에서 교원평가가 실시된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8학년도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 평가'선도 학교 지정 공모를 실시해 공모에 응한 총 702개교 가운데 506곳을 선도 학교로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4개교로 가장 많고 경북 56개교, 경남 49개교, 강원 45개교, 서울 39개교, 충남 37개교, 전남 32개교, 부산 29개교 등이다.

광주는 초등의 경우 광주동·서림·송학·송원초 등 4개교, 중등의 호남삼육·광주체육·살레시오·수피아여고 등 4개교다.

선도학교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능력개발 평가 일반화 모델을 적용해 2007학년도 교원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존의 교원 근무평정제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교원평가제는 초·중·고교장 및 교감, 교사가 평가 대상이며 평가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참여한다.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동료 교원들 간 상호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선도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고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학교폭력 적극 대처"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3월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내에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상담실을 설치하고, 학교

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매 주 1회 학교주변에서 학교폭력 예방 지도 활동을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피해 학생 학부모 간의 분쟁 조정 역할을 맡는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학교 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등을 맡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누구나 합격하는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고정지

전남고시학원 022-5115

특강시 강사들의 17년간의

중개사 특강

전남고시학원 022-5115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광주지역본부 021-4747, 02-4747, FAX 02-4747-4477, 02-4747-4477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TEL 10621282-0101

유해조수 구제 및타지 잡는 공기청정기

계림총포무역